

## 출판산업의 희망이 지식강국의 비전으로 승화되기를

백원근 (재)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지금 우리 출판산업은 커다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있다. 도서정가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부터 출판진흥기구 설립 추진에 이르기까지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판·서점계의 단합과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업그레이드되고, 출판산업의 희망이 지식강국의 비전으로 승화되는 2006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한국 출판계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개최(10월)를 통해 대외적 위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내적으로는 왜곡된 출판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 노력(3월), 출판진흥위원회 설립 논의(11월), 출판인 교육기관인 SBI(서울 북 인스티튜트) 출범(5월), 독서환경 구축을 위한 와우북 페스티벌 개최(10월) 등으로 침체된 산업환경을 쇄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했다. 해방되던 해 설립된 을유문화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영아 사망률'이 높은 출판계에서는 이례적인 환갑잔치를 열었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200쇄를 발행해 진귀한 스테디셀러 기록을 남겼다. 이른바 'TV셀러'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출판시장 규모는 약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산 출판 콘텐츠의 저조 등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분발이 요구됨을 확인한 해이기도 했다.

### 출판시장의 흐름과 풍경

지효성(遲效性) 교양보다는 생존을 위한 속효성(速效性) 실용 콘텐츠의 확산, 지친 삶을 위무하고 용기를 주는 서사와 논픽션, 불변의 가치에 육박하려는 고전과 과학적 상식의 재발견, 학습만화 및 미디어 믹스 활성화 등이 최근 몇 년간 출판시장의 흐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에서 2005년의 출판시장은 소설·취미·실용·종교·아동·경제경영 분야는 일부 신장된 반면, 중고등 학습참고서·유아/여성·사회과학·컴퓨터 등은 침체했다는 것이 서점가의 분석이다. 소설은 작년의 상대적 침체에 따른 반등 효과와 외국소설의 약진이 기여했고, 학습참고서 분야는 EBS 방송교재(2003년 213억 원(2004년부터 수능 출제) → 2005년 654억 원 추정)의 시장독점 효과로 전체 학습참고서 시장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는 민족해방 60주년, 한일 수교 40주년과

연관된 '한일 우정의 해'였으나 이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교과서 왜곡, 만화『혈한류』가 일본에서 인기 도서로 떠오른 가운데 동아시아 공동 역사책이 발간돼 주목을 받았다. 『미래를 여는 역사』를 필두로 『조선통신사』 『한일관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를 각국의 연구자가 참여해 민간 차원에서 공동출판한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해방 60주년의 기념비적인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기획 출판물이 거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반적인 출판시장 트렌드는 문학 분야에서 덴 브라운, 파울로 코엘료를 비롯한 외국 인기 저자들의 번역물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석권한 반면 국내 작가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중문학 시장에서 일본문학 판매량이 한국문학을 앞지른 점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2005년 베스트셀러 종합 20위권 안에 오른 문학도서 13권 중 국내 작가는 4명에 불과했으며, 상반기 소설분야 베스트셀러 100위권에 든 한국 작품은 22종으로 일본의 27종에 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모모』(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소개)로 대표되는 TV발(發) 콘텐츠시장 쓰나미(지진해일)가 보편화되면서 『TV동화 행복한 세상』 이래 증가하던 출판의 TV 베끼기가 역사 드라마 관련서와 『스펀지』 『위대한 밥상』 등 인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산된 점도 특징적이었다. 『위트 상식 사전』이나 아동물인 『100가지 과학 1000가지 상식』 등 상식·잡학(雜學) 관련서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으며, 경제경영 분야의 『설득의 심리학』을 비롯해 인문 분야의 『야심만만 심리학』 『유쾌한 심리학』 『유혹의 심리학』 등 줄을 이은 심리학 관련서의 부상, 지역별·테마형 여행서의 각광, 『마법 천자문』에 이은 학습만화의 약진도 계속됐

다. 또 한 해 동안 '영웅' 황우석 관련서가 20종 넘게 발행되는 등 사회와 대중의 관심사가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 지난 한해의 출판시장 풍경이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이렇다할 변별력이나 특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트렌드가 아닌가 여겨진다. 2005년의 최대 유행어라 불릴 만큼 화제를 모았던 『블루오션 전략』은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지만, 정작 출판 트렌드 측면에서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도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작보다는 전년도 인기 도서나 유명 저자들의 후속작이 판매량을 확대하는 지형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출판 판매 동향은 TV와 인터넷의 매체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화면 밖으로 복제돼 나온 책'들이 대중매체의 자장력(磁場力)에 기대어 인기를 모으는 경향이 강해졌고, 어려운 현실과 맞서며 삶을 위무하고 개척할 '용기의 나침반'을 안겨주는 책들이 변함없이 호응을 얻었으며, 2005년의 유일한 밀리언셀러(100만 부 판매)로 기록된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부터 경제경영, 비소설, 어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범주의 처세 매뉴얼들이 가일층 득세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이는 출판계의 국내 저자 개발에 의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가 미흡하고, 독자적인 출판 분야와 콘텐츠로 승부하거나 신규 분야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시장의 리메이크나 영상매체에 편승하여, 해외 저작물로 손쉽게 단기적으로 대처하려는 출판 풍토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출판계의 총체적 대응력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개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우리 나라는 주빈국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역대 주빈국 가운데 최대 규모

출판계는 2008년 IPA(국제출판협회) 총회 등 여러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추동력 확보를 전제로 정부의 주도면밀한 지원이 결합됨으로써 출판산업 발전의 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 총 185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치러진 이 '문화올림픽'에서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한국문화 알리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이다. 산업국가의 이미지를 문화국가로 바꿔놓았다는 독일측 조직위의 설명조차 '성과'로 기록됐다.

그러나 순하게 보도된 언론과 정부, 독일 및 한국 조직위의 자화자찬식 상찬(賞讚)과 달리 정작 국내 출판계의 중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관주도의 조직위 구성,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등으로 도서전의 위상에 걸맞게 모든 측면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출판과 출판계가 들러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지정한 '한국의 해'를 맞아 독일에서 수많은 한국문화 홍보 행사들이 있었던 만큼 굳이 도서전에서까지 문화 이벤트에 열중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당초 출판계가 유치한 행사임에도 스스로 추진력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과당 개입을 초래했고, 현대 한국출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장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과거와 미래만을 조명하여 박제화 된 디스플레이와 고정관념(과거 출판선진국, 미래의 IT강국)으로 치환시킨 측면이 크다. 즉, 출판계의 주도적인 행사 준비 과정을 통해 축적되었어야 할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해외 진출 로드맵에 대한 내적 추진동력 구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문화이벤트 행사와 전략 없는 일과성 국가홍보에 집중되고 말았다는 자성이 많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 중심의 번역 및 홍보활동도 미흡했다. 서강대 영문과 안선재(Brother Anthony) 교수는 『문학사상』(2005. 12)에 실린 「프랑크푸르트 이후: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글에서 "..... 청중의 대부분이 한국인들로 보이는 행사들..... 한국 취재팀만이 유일하게 취재하는 행사들이 많았다..... 세계 출판인들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주빈국관에 있었던 모든 것이 독일어로만 되어 있었다. 문학 관련 행사들 역시 주로 한국어와 독일어로 진행되었다.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문학을 독일어로만 독일에 소개하려는 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 1천 3백만 달러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우리 출판인들과 해외(특히 독일) 출판인들 간의 교류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밖에서 한 동네잔치'를 두고 한국문학 세계화에 기초를 닦았다거나 성공적이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앞으로 출판계는 2008년 IPA(국제출판협회) 총회 등 여러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추동력 확보를 전제로 정부의 주도면밀한 지원이 결합됨으로써 출판산업 발전의 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통구조의 양극화,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법안 상정**

2005년 3월말 '완전 도서정가제'를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0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진흥을 명시했음에도, 정작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가+할인 가격제'의 모순으로 인해 출판시장 혼란과 오프라인 역차별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해를 넘긴 이번 개정안이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출판시장의 1/3로 추정되는 할인 시장(인터넷서점 5천억 원, 할인점 및 홈쇼핑 3천억 원)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일반 중소서점은 물론이고 대다수 출판사와 도매업체가 심각한 자본경쟁의 폐해

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판매액 지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오프라인 소매업의 매출액 지수는 성장한 반면 출판물을 판매하는 오프라인서점의 매출은 물가를 감안한 불변금액 지수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가격 경쟁력이 없는 동네서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서점은 2004년 3,743억 원이던 매출 규모가 2005년에는 거의 5천억 원(전년대비 약 33% 성장) 규모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다. 출판시장에서 인터넷서점의 점유율은 전년도의 15.9%에 이어 2005년에는 21%대를 돌파했다. 이는 현행법의 가격제도 모순에 기인한 반사이익과 오프라인서점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판유통 구조의 위기라 할 만하다. 온·오프라인 공존 발전을 위해 도서정가제는 필요하며, 저자와 출판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지지하는 정가제를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문화관광부,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2005. 11) 참조).

발행 1년 미만 신간의 경우에도 일반서점과 달리 10% 법정 할인율에 추가 마일리지, 무료배송 등 직·간접 할인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 정가제로 인해 50% 안팎의 할인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온·오프라인 간 소매경쟁에서 인터넷서점이 확고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제도로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판시장 규모의 담보 내지는 감소 추세나 오프라인서점의 폐업 급증 현상과는 대조적인 인터넷서점의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모순된 법제에 기인한다는 것은 시급한 법제 개정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실이다. 국가는 더 이상의 시장 방임주의와 온라인 우대정책을 버리고, 지식·문화 유통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질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임프린트 출판의 대두와 전자책의 급성장

2005년에 주목할 만한 출판시장 흐름으로 회자된 것은 임프린트(imprint) 출판에 대한 관심이었다. 랜덤하우스중앙과 웅진씽크빅이 임프린트의 대표주자로 거론된다. 한국의 임프린트는 자본력 있는 출판사가 능력 있는 편집자를 스카우트해 계약 기간 동안 독립된 브랜드와 자본을 주고 그 성과를 분배하는 일종의 벤처 시스템으로, 소규모 출판사의 판본을 대형 출판사의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서양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자본주 입장에서는 자회사 체제와 같은 구속력이나 리스크가 없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고용된 편집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부담 없이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 하겠다. 국내 출판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출판기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임프린트 확산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지만 '유능한 편집자 빼가기'에 대한 도덕성 시비, 자본 논리에 의한 물량주의와 출판문화의 상업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임프린트 출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출판 분야에서 1990년대의 CD-ROM 등 광전자매체를 대체하며 200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2004년 현재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한국전자책컨소시엄 추정), 2005년에는 대형 전자책업체들의 솔루션 통합 효과로 약 500억 원까지 무난히 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IT시장 실험국답게, 지난 10월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무선 통합형 전자책 시스템인 U-북(유비쿼터스 북)을 선보인 점도 주목할 만한 뉴스였다.

국가적인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각종 학교, 도서관, 관공서 등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의 주요 콘텐츠로 전자책이 공급되면서, 이러한 관급시장이 전자책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정도로 추정될 만큼

2005년에 주목할 만한 출판시장 흐름으로 회자된 것은 임프린트 출판에 대한 관심이었다. 랜덤하우스중앙과 웅진씽크빅이 임프린트의 대표주자로 거론된다. 소규모 출판사의 판본을 대형 출판사의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서양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B2B(기관판매) 영역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교육청 단위의 일괄 구매제도가 일반적이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전자책 시장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전자책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책의 매체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달리진 독서환경 개선 노력

2005년에는 사회적인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했다. 국회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과 학교도서관 제정안이 계류 중인데, 2005년 가을에 청소년독서진흥법안 등 독서 관련법안이 3건이나 새로 제안되었다. 독서 관련 법제도의 모범에 해당하는 독서진흥기본법(가칭)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에 의한 공공도서관 확충도 계속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학교 논술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과 사서교사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은 '책 읽는 대한민국' 시리즈를 연재했고, 포털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NHN(네이버)은 대대적인 독서운동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다수 기업들도 독서경영 내지는 지식경영을 내걸었다. 출판계 역시 책 읽는 사회풍토 조성 과 독자 저변의 확산을 위해 '와우북 페스티벌'과 '책의 저자가 학교에 왔다' 등 독자를 찾아가는 능동적 이벤트를 벌였다. 아침독서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서 '아침독서운동'이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현상이라 하겠다.

기존의 독서 담론이나 활동들은 대개 일회적이고 선연적 차원에 머물던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 법제도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지속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강국의 성장엔진이 확고히 구축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풍요로운 독서환경을 위해 출판계는 가일층의 투자와 노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출판 발전으로 지식강국 비전 만들어야

이제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도서정가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부터 출판 진흥기구(가칭 '출판진흥위원회') 설립 추진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판·서점계의 단합과 협력이 불가결하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미디어믹스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동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전문 출판콘텐츠를 기획·생산하며, 합리적인 유통·판매 시스템과 독서환경을 구축할 때 우리 출판에 비전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업계 경쟁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당장의 사업적 수익성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이다. 지금 우리 출판산업은 커다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있다. 출판진흥법 제4조에 의한 출판산업 진흥시책(매 3년마다 수립·시행, 2003년 발표)이 보다 발전된 형태로 다시 업그레이드되고, 출판산업의 희망이 지식강국의 비전으로 승화되는 2006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